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 선정기

세계 미술사의 걸작들을 감상하는 재미 쏠쏠

1월, 새해를 시작하는 <출판저널>의 신간서가가 허전하다. 학생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모두 잠적하지는 않았을 터, 인근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으로 발품과 손품을 팔아 네 명의 기자들은, 이 달에도 12권의 책을 후보에 올렸다.

김려실의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박완서의 《울고도 아름다운 당신》, 김우창의 《풍경과 마음》, 이효석의 《이효석 단편 전집》(전2권), 천양희의 《천양희의 시의 숲을 거닐다》, 조하혜의 《울지 말아요, 비둘기》, 함민복의 《미안한 마음》, 이명권의 《예수, 석가를 만나다》, 이주현의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 성제훈의 《우리말 편지》(전2권), 최태영·최현명의 《야생동물 흔적도감》, 이동순의 《번지 없는 주막》 등 시집에서 에세이, 기행산문, 인문서 등 면면도 다양했다.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자.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과 《미안한 마음》 《야생동물 흔적도감》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가 각각 2표씩을 얻었으나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이 최재봉 기자와 전봉관 교수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얻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최재봉 기자는 “전문가적 식견과 유려하면서도 대중적인 글쓰기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저자를 치켜세우면서 “격동의 러시아 역사가 화가와 미술작품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러시아 민중들과 미술작품의 관계, 세계 미술사에서 러시아 미술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친절하게 들려준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 미술사의 걸작들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한편 전봉관 교수는 “저자는 러시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신화, 전설, 역사 등 문화 전반을 종합무진으로 넘나든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혹은 미술에 대해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라고 평가했다.

도감은 참으로 오랜만에 <출판저널> 이달의 책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며 고전평론가 고미숙 박사에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 “TV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볼 때처럼 가슴이 뛰다. 야생동물들의 사진첩이냐구? 아니다. 동물들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얼마 안 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야생동물들이 남긴 각종 흔적들이다. 발자국, 똥과 오줌, 냄새, 색깔 등등. 그것을 포착하는 방식도 사진, 그림, 세밀화 등실로 다양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 나아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책. 놀라워라!”

장석주 시인은 함민복의 산문 《미안한 마음》을 적극 추천하며 ‘함민복’을 일러 “이즈막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찾아보기 힘든 ‘자멸파’ 시인의 계보에 든다”고 평했다. “그이는 남들이 무리지어 가는 ‘도시’와 ‘속도’와 ‘효용성’과는 상관없이 ‘시골’과 ‘한가로움’과 ‘비효용성’을 섬기며 산다. 아울러 토종이고 자연산 시인이다. 자연산으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수밖에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위원

고미숙 수유너머 연구원, 고전평론가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전봉관 KAIST 인문학부 교수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에 없는 사람됨됨과 곡진함이 문장에도 배어나니 그 물과 그 쌀로 지은 밥(글)도 틀림없는 자연산이겠다. ... 온갖 잡식으로 입맛을 잃고 피로에 절어 사는 도시 사람들에게 강화도 갯내가 듬뿍 배인 그이의 무공해 산문을 읽히고 싶어 앞머리에 올린다.”

기실 <출판저널> 내부에서는, 기왕에 그랬던 것처럼 인문서가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이 있었다. 역시나 두 분의 선정위원에 의해 추천이 되는, 무명의 저자임에도 책은 내공을 발휘했다.

전봉관 교수는 “180여 편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조선 영화 가운데 작품이 전해지는 12편과 시나리오·신문·잡지의 영화 관련 기사 등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충실하게 재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항일영화 대 친일영화, 민족적 전통 대 종속적 모방, 리얼리즘 대 신과 멜로드라마의 이분법을 넘어서려한 소장학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고미숙 박사 역시 “제목이 다소 학술적이지만, 그동안 배제되거나 잊혀졌던 영화사의 자료들을 성실하게 발굴했다는 것, 식민지 시대 영화사를 민족주의와 리얼리즘의 틀을 벗어나 제국과 식민지를 동시적으로 보고자 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영화를 공부하는 이들은 물론, 한국의 근대성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고 추천사를 보내왔다.

복수로 추천된 책들 외에도 책의 면면은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고도 남음이 있는 책들이 많았다. 최재봉 기자는 김우창 교수의 <풍경과 마음>을 추천하면서 “그가 본업인 문학에 더해 미술 쪽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을 알게 된다”면서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이 이상사회를 향한 염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평가했다.

장석주 시인이 “얕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다”고 말한 <우리말 편지>도 녹록치 않은 내공을 선보인다. 장 시인은 “이이가 우리말에 관한 내공을 쌓은 것은 평소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위를 곁에 끼고 산 탓이다. 이이의 우리말 사랑이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걸 조금만 받아써도 좋겠다”라고 독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각설하고, 2월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달의 책으로 미술평론가 이주현의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이 선정되었다.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러시아 미술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푸슈킨 미술관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에 전시된 수많은 작품들 중 엄선한 125점의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2월 한 달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주현**

정리·김동석 기자